

I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구조적 차이가 애매해졌으며, 청소년에게 있어서 발달의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성인로의 이행 과정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직업의식형성을 둘러싸고 제반 환경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를 둘러싼 학교중심적 문화에서 학교밖 문화로의 이동, 산업구조의 개편에 기인하는 직업가치관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노동력의 대체 현상, 고졸 노동시장의 침체화, 아울러 고등교육 진학의 대중화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심리적 의존기간의 연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직업정보의 무차별적 범람에 따른 직업선택의 혼란, 물질중심적 사고의 만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소년의 성인로의 이행 그리고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의식형성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직업과의 관련을 둘러싼 모든 상황의 변화를 역사적 경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및 확대정책으로 인해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는 산업구조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청소년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고졸청소년 노동시장을 비롯한 청소년노동시장의 위축,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한 직업의식의 개인주의화 경향의 강화와 경제적 사회적 자립의 지연, 부모에 대

한 의존기간의 연장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성인으로의 이행,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커다란 변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 및 그 구조의 이해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회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세대적 특성과 직업세계로의 이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경계선에 위치한 청소년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에 대한 반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실험(role experimentation)을 경험함으로써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의존적 존재에서 자립적 성인기로 향하는 전환기(transitional period), 또는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의 행동을 식별하여 이러한 행동들 사이에서 새로운 존재적 적응을 몸에 익혀가는 ‘한계상태’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발달론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기의 특징적 행동으로서 신체적 변화를 비롯한 자기 자신의 역할과 신념, 가치관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또래집단의 형성, 성인의 역할 습득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시기이다.

즉, 청소년기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립한 성인이 되기 위하여 성숙해가는 중간적 발달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 사회규범 등을 경험적으로 학습해 가는 사회, 문화적 발달의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서 보이는 심리, 행동적 특징은 이러한 이행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으로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이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그들의 ‘경

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이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이행해 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자기화하는 과정이 청소년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립과정의 근대 사회 또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宮本(1996)도 지적하고 있듯이,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은 노동시장과 복지 국가의 구조를 통하여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직업의 선택, 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성인으로서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지되기는 하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여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권리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등과 같은 권리는 유급고용과 관련하여 획득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자기인식,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경제적, 정신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성인으로서의 역할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생의 중요한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다음, 사회참여활동과의 관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직업의식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자. 加藤他(1984 : 5)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청소년 자신이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집단이나 지역 사회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자주적 선택의 과정이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 형태는 집단에 귀속 의식을 가지며 집단이 자신의 것이 되는 단계부터 집단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인식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거

쳐 집단내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폭넓게 사회와 관련성을 지니는 단계까지를 사회 참여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교육적 효과 또는 의의의 관점에서 검토하기보다 정치적,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그들의 직업의식형성의 문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Havighurst(1953)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중요한 발달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그들의 사회참여가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직업의식형성과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접근(장원섭, 1999; 김기현, 2003), 직업교육적 접근(이무근, 2003), 진로지도적 접근(진미석, 2000)을 통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사회참여가 가지는 특징들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대한 규명 작업을 사회참여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

은 경기의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첫 일자리 진입기간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의식도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下山(1986)가 개발한 직업의식 미결정척도를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심리, 사회학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정치적 자기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참여자로서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는 있으나, 직업의식형성과 관련해서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참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실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체험활동을 구체화하여, 즉 사회참여활동의 유형을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활동,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참여활동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설문조사, 내용분석,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한 관련 이론의 고찰. 청소년의 직업의식 형성과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관련 연구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기반한 경제학적 관점과 발달론 특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 직업의식 및 직업선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직업사회학적 접근,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관련 이론들에 대한 연구를 문헌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직업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회 참가의 의의 및 의미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이해의 틀(scheme)을 바탕으로 실제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구조를 사회참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 한 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 형태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남녀 성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내용분석. 실제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활동들을 관찰과 면접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 참가에 대한 의식과 직업에 대한 의식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활동 현장을 찾아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의식을 물음으로써 설문지 방법을 통한 의식의 계량화가 지니는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다.

Ⅱ .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고찰
3. 청소년과 사회참여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4. 선행연구의 고찰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직업의식에 대한 개념 정의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먼저 직업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Hodson과 Sullivan(1995 : 49)에 의하면, 직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사회적 및 기술적 구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Rothman, 1987 : 7)(유홍준, 2002 : 6에서 재인용). 한편, 伊藤(1998 : 1-2)에 의하면 직업이란 개성의 발휘, 연대의 실현 및 생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계속적 행위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柳井(2001 : 161)는 직업을 개인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계속적 활동이며, 동시에 사회 존속을 위한 역할분담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이 단순한 취미로서 즐기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의 작업이나 노동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森下(1988 : 2-3)는 직업의 구성요소인 생계의 유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리고 노동의 3가지 요인이 일에 대한 동기로서 집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 및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직업선택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됨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직업적 사회화(vocational soci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직업적 사회화는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흥미·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동기에서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성인기를 거쳐 직업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노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친 사회적 자아의 형성을 일차적 사회화라고 한다면, 직업적 사회화는 그 이후에 생기는 이차적 사회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 환경에 참여하게 되는 직업적 자아의 형성을 의미하게 된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 직업적 사회화란 자신이 장래 종사하게 될 직업의 지위와 역할 달성에 필요한 지식 또는 가치, 규범을 획득하여 직업과의 일체화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직업의식(vocational consciousness)이란 통상 어떤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직업의식의 개념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직업에 대한 의식 또는 태도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래 자신이 결정해야 할 선택과제로서의 직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의식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의식 또는 태도를 포함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업 일반에 대한 의식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등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에게 있어서 직업의식은 고정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생활체험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청소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의식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체험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가변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김병숙 외(1997)는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을 특정화하고 있진 않지만 직업의식(vocational consciousness)을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하여 주어진 시

점에서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표상의 신념체계를 갖고 가치를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신념체계에 의하여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지며, 태도, 가치, 신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상하는 한편, 언어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일에 대하여 빈번히 반복되는 행동 습관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는 직업의식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대상을 실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관계로 아직 직업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2) 개인-환경적합이론(Person-Environment Theory)

개인-환경적합이론(이하 적합이론)은 흥미나 적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특성과 직무환경과의 일치 정도가 직업생활의 성공 또는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가설위에 성립된 이론으로, 특성-요인이론(trait-factor theory)이라고 일컬어진다. 적합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¹⁾

첫째, 각 개인에게는 심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직업이 존재한다.

둘째, 각 직업은 그 작업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그 요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직업 내용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셋째, 직업적응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건과의 일치 정도에 기인한다. 그 특성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을 했을 경우 직업상의 만족도가 많아져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도 커진다.

아울러, 대표적인 적합이론으로 Holland(1959, 1973)의 6각형 모델

1) 宗方(2003:16)의 분류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이 있다. Holland는 Spranger의 가치유형 및 Guilford(1954)가 제작한 흥미 요인분석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직업에 대한 흥미를 ①현실적(realistic), ②탐구적(investigative), ③예술적(artistic), ④사회적(social), ⑤기업적(enterprising), ⑥관습적(conventional)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직업적 흥미에 적합한 6가지 종류의 직업환경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 Holland의 직업적 흥미와 직업환경

직업적 흥미	직업환경
현실적 흥미	전기·기계기사, 운전사, 기계조립·수리, 각종기능자 등 물적 대상을 상대로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진 형태
탐구적 흥미	생물, 물리, 과학, 천문 등 소위 자연과학과 관련된 흥미로 구성
예술적 흥미	문학, 음악, 그림 등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 흥미
사회적 흥미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일에 흥미
기업적 흥미	경영자, 증권·금융분야 등, 행사의 기획, 운영 등의 업무에 흥미
관습적 흥미	사법, 세무, 회계, 재무, 행정 등 법, 제도 관련 체계를 관리하는 것에 흥미

이러한 Holland의 유형 분류에 대하여 Rounds & Tracey(1995)는 Holland의 유형 분류는 미국적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나, 미국 이외의 문화적 환경을 지닌 국가들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Gati(1991)는 Holland의 6가지 유형 분류는 <현실적 흥미와 탐구적 흥미>, <예술적 흥미와 사회적 흥미>, <기업적 흥미와 관습적 흥미>의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계층 모델을 지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 분류에 대하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연구적 가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인격특성이론(personality theory)

개인의 인격적 특성과 직업의식 및 선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고 Roe와 Schein의 이론을 꼽을 수 있는데, 우선 Roe(1957)는 정신분석이론과 Maslow의 욕구계층설에 의거하여 인간의 발달초기에 있어서 기본적 욕구 여부가 개인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아기의 부모와의 관계가 직업선택에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을, 반대로 애정이 메마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非)대인관계지향의 직업을 선택할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론에 대하여 Brown, Lum, & Voyle(1997)은 유아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심리적 욕구의 구조를 매개로 하여 직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생활에서의 좌절이나 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이론이 직업선택과의 관련보다는 직업에 대한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직업을 분류하는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분류의 기준을 “대인지향적이나, 대물(對物)지향적이냐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Prediger, 1982; Tracey & Rounds, 1996).

또 하나의 이론으로 Schein(1978)는 직업의식의 발달에 있어서 직업생활의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직업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이후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의식의 발달을 좌우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4) 자아개념발달이론(self-concept developmental theory)

자아개념이론이란 직업의식의 발달과정을 자아개념(self concept)의 성숙과 발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으로, 자아이론이라고도 한다. 宗方(2003)는 이론의 중심적 명제를 다음의 3가지 점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개인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정의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생활의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생성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능력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개념을 수정하게 된다.

둘째, 인간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발달시켜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자기 이미지와 비교하게 된다.

셋째,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직업 결정의 적절성 여부는 개인의 자아개념과 직업적 개념과의 유사성에 기초한다.

즉, 직업의식의 발달은 자아개념의 발전과 변용, 모색과 현실적 자아개념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기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Ginzberg(1951)와 Super(1957), Tideman과 O'hara(1963) 등이 있다. 각 이론들의 핵심적 개념과 주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Ginzberg의 이론은 직업행동과 관련된 최초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직업선택은 발달과정속에서 수행되는 발달과제이며, 단기간에 완결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정서적 요인, 교육 기회와 그 성과, 달성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흥미, 능력, 욕망과 현실사회와의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가역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표 II-2>와 같이 개인의 직업의식의 발달을 5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는 주로 잠정기와 현실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로, 잠정적이기는 하나 직업선택을 현실적 선택과제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I-2> Ginzberg의 직업선택 및 직업의식 발달 단계

발달단계	하위단계	연령	특징
환상기 (Fantasy)	-	-12세	욕구와 충동이 직업선택에 반영되는 시기이며, 자신이 희망하면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믿음
잠정기 : 직업적 요구조건에 대한 인식단계 (Tentative)	흥미단계 (interest stage)	12-13	흥미가 직업선택의 기초
	능력단계 (capacity stage)	14-15	진로계획에 능력을 고려하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은 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
	가치단계 (value stage)	15-17	직업선택과정에서 가치적인 요소가 고려
	전환단계 (transition stage)	18세경	직업선택에 있어서 흥미, 자신의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
현실기 : 능력과 흥미의 통합단계 (Realistic)	모색단계 (exploration stage)	18-20 대초반	직업선택을 모색하는 시기로 직업 기회를 조사하여 선택에 관하여 고려
	구체화단계 (crystallization stage)		직업선택이 구체화되어, 타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정화단계 (specification stage)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직업으로 이행한다

출처 : Zunker(1998:29)

그리고, Super는 직업적 성숙(vocational maturity)과 직업적 자아개념(vocational self-concept)을 이론의 중심으로 보아, 직업의식의 발달의 과정을 자아개념의 성숙, 발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숙기」,

「모색기」, 「확립기」, 「유지기」, 「하강기」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직업선택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시기가 모색기이며, 이 시기를 다시 「모색기」(15-19세), 「이행기」(19-22세), 「시행기」(22-25세)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각 시기의 직업적 발달 과제를 모색기의 과제인 직업적 취향의 결정화는 자신에게 있어서 적절한 직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형성할 것을 개인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교육상의 진로결정에 의해 잠정적인 직업선택을 중개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적 자기 개념의 발달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이행기의 과제는 직업적 취향의 특정화이며, 일반적인 직업 결정의 방향을 특정한 직업으로 좁혀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시기가 구체적인 직업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시행기의 과제는 직업적 취향의 이행이다. 이 과제는 취향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욕구를 인식할 것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것 등이 요구된다.

한편, Tideman and O'hara는 직업동일성 획득의 과정을 「예측의 측면」과 「현실·적응의 측면」으로 분류한 다음, 전자를 「모색단계」, 「결정단계」(자신의 가치관, 취향에 대하여 평가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선택사항을 서열화한다), 「선택단계」, 「명확화단계」(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하여 상황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한다)에, 후자를 「도입단계」(선택한 직장에서 그 집단에 적응한다거나 목표를 수정한다), 「개혁단계」(자신의 의견 등을 주장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종합단계」(주위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를 절충해 나간다)로 재분류하고 있다. 그들의 이론적 특색으로는 직업동일성(vocational identity)을 자기동일성(ego identity)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직업동일성 획득의 과정을 자아 또는 인격(personality)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직업동일성의 획득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Ginzberg의 이론에서는 직업선택의 과정은 불가역적인 것이며 한번 선택하게 되면 도중에 그 선택을 변경하거나 거꾸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직업선택은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등과 현실적, 환경적 요인과의 타협의 과정이며, 이 타협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이론은 면밀한 관찰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도출한 것이기는 하나, 조사대상이 백인 남자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지적 수준도 높은 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宮内(1992)는 Super와 Ginzberg의 이론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제기된 이론이며, 미국과 다른 사회적 환경과 경제 구조 그리고 문화적 특징을 가진 지역 및 국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일본 사회에 적합한 직업의식발달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宮内는 인간의 직업의식발달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가 공상적 선택기(출생에서 12세), 2단계가 잠정적 선택기(13~18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잠정적 분류기를 다시 두 가지 단계로 재분류하고 있는데, 16세~18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잠정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이 시기는 고등학교시기에 해당하며, 직업에 대한 목표의 선택기준으로 「능력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직업의식의 발달은 Super가 제시한 흥미→능력→가치관의 순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치관→능력의 순으로 발달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흥미, 가치관, 능력의 개인적 요인과 취직기회 등의 외부요인과의 관련은 직업의식의 발달의 잠정적인 형태이긴 하나 구체화되는 시기를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의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단계로, 현실적 선택·적응기(19세~22세)를 들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희망하는 수준과 분야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 특히 이공계열인 경우와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했을 경우에 따라 직업의식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며, 한편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에 따라 현실적 측면에서의 직업의식의 형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업분야로 진출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현실적 직업의식의 형성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宮内の 이론도 최근 일본 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고용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Hackett와 Betz(1981)은 Bandura(1977)가 주창한 사회학습이론을 직업선택의 영역에 응용하여, 사회인지이론을 구축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사회경제적상황이나 산업조직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인 힘이나 일, 훈련의 기회, 사회정책, 기술의 개발, 가족 및 지역사회, 교육시스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직업선택 및 직업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과 아울러 인지적 요인이 직업선택행동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 사회인지이론이다. 특히, 인지적 요인 중에서도 자기효능감 기대(self efficacy expectation)는 여성의 직업의식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효능감이란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떠한 과제 또는 행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일종의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과제 또는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직업선택 또는 직업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심, 가치, 목표 등 직업선택의 중심적 예측 요인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宗方(2003)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업

흥미의 폭이 넓으며 학업에 있어서도 강한 끈기와 인내를 보여주며,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한다.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직업 선택을 폭을 넓게 설정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이론이 Lent et al(1994)에 의하여 직업적사회인지발달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목표설정 등과 같은 사회인지변수와 외부적 지원 또는 장애 등의 환경변수, 성별·인종·건강상태 등의 배경변수가 직업상의 흥미, 선택,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 영향요인에 관한 고찰

Super & Bohn(1970)는 직업의식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표 II-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개의 결정요인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그중에서도 지능이나 교육수준,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며 정형화된 직업유형으로 이행할 경향이 강하며, 학교 내 성적도 직업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도 직업의식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 내지는 직업교육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II-3>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 결정요인

심리적 결정요인	사회적결정요인	경제적, 일반적 결정요인
지능 적성 흥미 가치관 욕구	사회경제적지위 교육정도 가정환경 병역의무 시민권 인권 종교 성차	경제환경 경제호황, 불황여부 일반적 유행 기술적 혁신 전쟁 자연재해

출처 : Super ad Bohn(1970), 宮内(1992)

宗方他(2003 : 15-16)는 직업선택의 결정요인으로 능력 또는 적성과 직업에 대한 흥미, 개인의 인격적 특성(personality)을 들고 있는데, 그중 능력 또는 적성이 직업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Hunter(1986) 또한 일반적인 인지능력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성적이나 직업상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지능력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성적의 분산 64%정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내용을 일반화하는 능력에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직업상의 지식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흥미도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에 대한 흥미는 일반적인 흥미와는 달리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Prediger(1982)는 직업흥미의 구조를 「자료(data)/아이디어(idea)」와 「대인(people)/대물(thing)」의 2차원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를 직업지도에 이용하였다.

김병숙 외(1997 : 37-40)는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가정적 배경, 학교와 친구집단, 성역할 사회화, 일에 대한 경험의 요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점은 일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의 일에 대한 경험은 장래 그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직업세계의 현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을 경험함으로써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어떻게 돈과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은 청소년들의 배경적 특성이나 일의 유형에 따라 노동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소유함으로써 장래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로 장원섭(2000)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의 목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서는 구체적인 일의 내용에 관한 언급이 없고,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제 취업의 유형들, 즉 단순사무보조나 배달, 서빙 등과 같은 분야의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과 직업의식형성간의 관계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성과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orgen(1986)은 인격적 특성의 정의와 그 분석의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격적 특성이 적용 또는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조

작적으로 정의되었을 경우, 직업의식과 인격적 특성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흥미와 관련지어 설명했을 경우 양자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청소년과 사회참여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청소년이란 존재가 사회로부터 인지되기 시작한 근대이후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물론 사회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내면화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침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에 대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는, 청소년이 사회속에서 일정 부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있어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그들의 성인으로서의 이행과 함께 그들이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加藤(1984:5)는 청소년 자신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그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자주적인 선택의 과정이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집단에 대한 귀속의식을 가지게 되는 단계에서 집단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집단내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지 기반으로 보다 폭넓게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加藤(1981:1)와 松原(1978:1)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는 성장발달의 과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은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해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며, 자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그들은 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경험을 통하여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획득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자아의 실현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과 사회라고 하는 2개의 객체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청소년참여에 관한 개념의 규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Winter(1997)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art(1997)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의 기본권리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UN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경제적 참여(economic participation),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문화적 참여(cultural particip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경제적 참여(economic participation)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work)을 관리하고 일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공유하며,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고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개 지속적인 고용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고려하지 않는 일시적인 부분의 고용을 구성하고 있다. 세대의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인 권위구조에서는 청소년노동자의 노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주외 : 1999, 10-11에서 재인용). 위의 분류에서 청년의 직업의식 및 직업선

택과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보면, 경제적 참여는 구체적인 일 또는 직업에 대한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형성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 문화적 참여의 경우는 직업의식형성과의 관련에 있어 경제적 참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짐작된다.²⁾

한편, 청소년기의 생활경험 및 사회경험을 교육 목적 및 의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고와 행동을 경험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은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성립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타인의 생명, 인격 나아가 가치관 등을 이해, 존중하며 법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규제와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것」으로서 실제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습득해 나가는데 생활, 사회체험의 교육적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참여에 대한 경험의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4. 선행연구의 고찰

1) 국내에서의 청소년의 직업의식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2) 이에 관한 검토로는 2004년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의 결과 아르바이트와 직업체험활동 여부가 그들의 직업의식형성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반면,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직업의식과의 관련에서 그다지 깊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음에 기초하고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양한주(1997), 김병숙 외(1997), 권일남(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봉사성, 독창성, 독립성, 욕구충족성 및 자아실현성 등과 같은 내재적 가치와 수익성, 존경성, 안정성 등과 같은 외재적 가치 그리고 대인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부수적 가치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를 계량화된 척도에 의거해서 설명하려고 한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인정되나, 아쉽게도 이들 직업의식의 구성내용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만을 상정하고 있어 직업의식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또한, 김병숙 외(1997)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직업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가치영역, 태도영역, 의견영역 그리고 관습영역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 볼 사항으로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다른 대학생 또는 성인에 비하여 직업에 대한 권위주의 의식이 약하며, 직장내에서의 연공서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의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직업의식의 파악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업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리고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한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체험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에 관해서는 몇몇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병숙 외(1997)와 장원섭(2000), 이광호(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김병숙 외의 연구 결과와 장원섭의 연구 결과에서 공통되게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직업의식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

다. 위의 연구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먼저, 김병숙은 직업의식의 개념을 가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장원섭은 직업의식을 직업가치, 태도, 의견 그리고 관습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장원섭의 연구에서는 직업의식과 아르바이트의 경험간의 관계성에 관한 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간의 관계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진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 임성호(2003)는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경험과 비행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경험은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행위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시간제취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에서의 청소년의 직업의식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청소년 직업의식 규명에 있어 1990년대 이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및 성인으로의 이행(transition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youth to adult)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유의한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1990년대 초반 일본 노동성(1993)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청소년들은 직업과 여가를 병행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며, 첫 번째 일자리 선택에 있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프리터의 증가 경향이 보여지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사회에서 프리터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생활백서(2003)의 의하면 417만명, 노동경제백서(2003)에 의하면 209만명이 프리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프리터 수가 상이함에는 조사 기관이 상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리터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백서를 발간하는 내각부에서는 “16-35세(학생 및 전업주부 제외)의 청소년들 중 파트타임(part time) 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일을 할 의욕을 가진 무직 상태의 이들”을 프리터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노동경제백서를 발간하는 후생노동성에서는 “16-35세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자로 한정하여, 게다가 ①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근무처에서의 호칭이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인 고용자, ②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전업주부도 아니며 학생도 아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희망하는 자”를 프리터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터 증가의 원인으로 小杉(2004)는 2가지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노동력 수요의 변화를 들고 있다. 기업이 이전과는 다른 채용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보다는 임시직 및 계약직 형태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채용 관행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구조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력 수준을 가진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보다 프리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며, 기업에서는 중졸 및 고졸 청소년보다는 대졸 청소년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고등학교 청소년 및 대학교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대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학교 졸업후의 하나의 이행과정으로 프리터 또는 실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직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労働研究機構(2000)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프리터를 선택하는 이유로 구직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직을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취직을 유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다수는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고 싶어서 취직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다수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도 대학을 포함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편, 労働省의 조사(1993)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관한 경향성에 있어서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 가치, 즉 수입, 사내 분위기, 근무일수,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소위 3D 업종에 관해서는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의 유예 및 직업이 그들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의 직업의식 유예성향 또는 직업의식미결정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발간된 労働經濟白書(2004)에 따르면,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층중 프리터의 수는 217만명이며, 무업자의 수는 2만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이들 조사대상층의 8%에 해당한다고 한다.

먼저, 청소년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荻谷(1988, 1989, 1994)는 자신의 연구에서 1990년대까지 일본은 고등학교와 직업세계가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실적관계(merit system)³⁾의 구조적 지원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의 직업세계에 대한 안정적인

3) 고등학교와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는 기업에서 신뢰할 만한 인재를 자체 선발을 통하여 공급하며, 기업 또한 학교로부터 추천된 인재를 특별한 내부 변별 과정 없이 채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행(transition to work)이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지원체제도 1990년 이후의 경제의 침체로 인한 청소년 노동시장의 붕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小杉(2004)는 최근 일본 청소년의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한 배경으로 실업률의 증가, 프리터(freeter)⁴⁾의 증가 그리고 학교 졸업후 진학, 취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청소년층, 즉 무업자(無業者) 증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교기본조사(199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집단, 소위 “무업자”의 수가 11만5천명에 달하며, 이러한 숫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7%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 13명중 1명이 무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荻谷외(1997)는 「고졸진로미결정자의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자 집단의 성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무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은 무업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셋째, 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무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배경,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같은 요인은 무업자와는 그다지 큰 관련성을 지

4) 프리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1989년 프로무에이(From A)라고 하는 취업알선잡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전문적 의미와 일상적 용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터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노동후생성(노동백서), 내각부(국민생활백서), 문부과학성(학교기본조사)의 통계적 정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도출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일상적 용어 사용으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취업형태를 취하면서 정규직에 취직하고 있지 않는 젊은이층을 프리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니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에 진로에 대하여 부모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향후 직업선택 및 직업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見塚(2000)의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耳塚는 고졸노동시장의 침체, 고등학교 청소년들 문화의 변화, 교육이념과 진로지도방법의 변화 그리고 가정적 배경 등의 원인에 의해 고졸자들의 무업자 전략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들이 무업자로 전략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일의 힘듦과 소중함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에 대하여 그다지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들은 프리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터를 희망하는 이들은 대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고,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학교내의 친구보다 학교밖의 친구들이 더 많으며, 아울러 학교성적도 비교적 하위층에 속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직업도 이들의 프리터 지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블루칼라층의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화이트칼라층의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 비해 프리터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労働研究機構(2004)는 무업자 및 프리터에 관한 질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몇 가지 점들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고등학교 시기의 주변 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직업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중 고등학교 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들의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학 진학이후에도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졸업이후에도 빠른 시기에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

한 점은, 현대 일본 청소년들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학교의 사회화 기능의 저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에서의 훈련 및 체험을 통하여 학교의 사회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의 개인화 및 탈조직화, 탈정형화현상이 그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설정
2. 조사내용의 구성
3. 분석방법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의 설정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곳과 실업계 고등학교 3곳 등 6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893명으로,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491명(55.0%)이었으며, 여자 청소년이 402명(45.0%)이었다. 설문조사는 해당 학교와 조사보조원의 협조를 얻어 2004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의 방법을 통하여 배포 및 회수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사항목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491	55.0
	여자	402	45.0
	합계	893	100.0
학년별	1학년	331	37.1
	2학년	349	39.1
	3학년	213	23.9
	합계	893	100.0
학교유형별	인문계고교	576	64.5
	실업계고교	317	35.5
	합계	893	100.0

2. 조사내용의 구성

1) 직업의식결정척도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下山(1986)가 개발한 직업의식결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업의식결정척도는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下山도 언급하고 있듯이 일부 항목을 조사 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몇몇 항목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업의식결정척도는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숙」은 장래에 관한 전망이 없으며, 직업선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혼란」은 청소년들이 직업결정의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말한다. 「유예」는 직업에 대한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며, 당장은 직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모색」은 직업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일」은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를 직업선택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안일한 직업미결정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은 말 그대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적성을 고려하여 장래 자신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한 상태를 의미한다.

<표 Ⅲ-2> 직업의식결정척도 항목의 구성

영역	질문수	질 문 내 용
미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 장래 자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을 지에 대한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 지금까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직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면 불안해진다 · 혼자서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 지금의 상태로는 일생동안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직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
혼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 지 불안하다 · 직업결정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면, 심한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자주 계획이 바뀐다 · 직업을 잘못 선택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 나는 언제나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직업만을 생각한다 ·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자신이 없다 ·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 나는 어떤 때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들 때도 있으나, 반대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유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다면 직업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미루고 싶다 · 직업결정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아도 그 질문에 대한 현실감이 별로 없다 · 나에게 있어 취직을 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 장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다 · 직업에 관한 사항은 졸업할 무렵이나 생각해 보고 싶다 · 가능하다면, 특징을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생활하고 싶다
모색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에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몇 가지 있으며, 그런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 최종적으로 직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여유가 있으며, 지금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 직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직업을 결정하겠다 ·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몇 가지를 고른 상태이나, 꼭 짚어 하나를 선택하지는 못하겠다 ·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다 · 직업에 관한 사항은 졸업할 무렵이나 생각해 보고 싶다
안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직업의 종류는 개의치 않는다 · 자신이 어떠한 직업에 맞는 적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채용해 줄 회사라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 가능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직업을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결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계획은 착실하게 잘 준비되고 있다 ·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실현단계에 있다 · 자신이 직업 결정에는 자신이 있다 ·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

2)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 변수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변수들로 ①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 등의 변수와 학교성적(상, 중, 하), 진로결정 유무 등과 같은 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②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로 부모의 학력(고등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업, 4년제대학졸업, 대학원졸업, 기타)과 월수입(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이상, 수입없음, 기타), 부모의 직업(자유선택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재분류) 등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3) 사회참여활동 변수

사회참여활동변수의 설정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외 시간 및 장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① 아르바이트, ② 자원봉사활동, ③ 직업체험활동, ④ 동아리활동, ⑤ 청소년단체활동, ⑥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의 6가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 유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과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분석결과
2.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분석결과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분석결과

1)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및 아르바이트 활성화를 지원방안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병숙 외, 1998; 이철위 외, 2000; 장원섭, 2000; 이광호 외, 2001).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 있어 아르바이트가 가지는 의미 및 비중이 커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하며, 이러한 작업은 아르바이트와 직업의식간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1.9%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5.3%는 학생은 현재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볼 때 성별,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교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44.3%)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25.1%)에 비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율도 높으며, 현재도 대략 10명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철위 외(2000)의 연구결과(과거 경험율 29.2%, 현재 참가 3.1%)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31.1	5.7	22.7	17.8	17.4	5.3	9.42 (n.s)
	여자	33.0	4.8	17.5	15.0	24.0	5.8	
학년별	1학년	28.2	3.9	20.9	18.5	21.2	7.3	21.54 *
	2학년	31.0	4.3	21.6	17.8	20.7	4.6	
	3학년	39.3	9.0	17.5	11.4	18.5	4.3	
학교별	인문계	25.1	2.4	22.0	19.4	24.3	6.8	74.97 * * *
	실업계	44.3	10.4	17.4	11.4	13.3	3.2	
합계		31.9	5.3	20.4	16.5	20.4	5.5	100(889명)

* p<.05 * * * p<.001

- ① 과거에는 활동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② 현재 활동중 ③ 해 본적 없다
 ④ 하고 싶으나, 할 곳이 마땅히 없다 ⑤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⑥ 기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의 유형에 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서비스관련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9.3%). 특히, 남자 청소년들(54.3%)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65.4%)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의 서빙과 같은 서비스관련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50.3%)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67.4%)에 비해 서비스관련분야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이철위 외(2000)의 조사 결과(전단지돌리기 44.4%, 음식점 서빙 13.1%, 신문배달 5.6%, 패스트푸드점 4.5%, 주유소 2.8%)와는 일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제공분야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들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학생의 신분이란 점 때문에 종사할 수 있

는 분야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가정의 경제적 요인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집단 중에서 가정의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의 아르바이트 경험율(29.9%)이 낮으며, 가정이 수입이 적은 청소년집단의 경험율(70.1%)이 높다는 점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가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유형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카이검증
성별	남자	54.3	12.5	1.6	0.0	2.7	22.8	6.0	18.23 * *
	여자	65.4	3.3	2.0	1.3	0.7	17.0	10.5	
학년별	1학년	56.7	5.8	2.9	0.0	1.0	26.0	7.7	14.21(n.s)
	2학년	57.7	12.2	0.8	0.0	1.6	20.3	7.3	
	3학년	63.6	6.4	1.8	1.8	2.7	14.5	9.1	
학교별	인문계	50.3	7.5	2.5	0.0	1.9	29.6	8.2	20.21 * *
	실업계	67.4	9.0	1.1	1.1	1.7	11.8	7.9	
합계		59.3	8.3	1.8	0.6	1.8	20.2	8.0	100(337명)

* * p<.01

- ① 서비스관련 ② 제조업 및 육체노동관련 ③ 교육관련 ④ 가사보조
 ⑤ 사무보조 ⑥ 신문배달 및 전단지 배포 ⑦기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을까요? 먼저 조사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표 IV-2>의 내용 설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지 않

는 분야, 즉 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의 서빙, 전단지 및 신문배달 등의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이번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을 월단위로 책정하여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67.0%)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50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일부 청소년들(15.5%)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월 수입이 50만원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 정도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카이검증
성별	남자	66.5	18.4	2.2	1.7	10.6	8.13(n.s)
	여자	67.5	11.9	0.7	1.3	18.5	
학년별	1학년	66.0	11.7	1.9	2.9	17.5	13.16(n.s)
	2학년	74.4	12.4	0.8	0.8	11.6	
	3학년	59.4	22.6	1.9	0.9	14.2	
학교별	인문계	69.9	10.9	0.0	0.6	18.6	15.14 * *
	실업계	64.4	19.5	2.9	2.3	10.3	
합계		67.0	15.5	1.5	1.5	14.2	100(330명)

* * p<.01

① 50만원미만 ② 50-100만원 ③ 100-200만원 ④ 200만원이상 ⑤기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아르바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47.6%), 아울러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44.0%)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기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향후 자신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거나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

는 청소년들은 극히 소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생활경험의 축적의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진로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표 IV-4>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인식(장점)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44.4	46.5	4.5	2.0	0.5	2.0	6.31(n.s)
	여자	51.5	41.1	1.8	0.6	0.6	4.3	
학년별	1학년	53.6	36.4	3.6	1.8	0.9	3.6	9.10(n.s)
	2학년	48.0	44.9	1.6	1.6	0.0	3.9	
	3학년	41.9	50.0	4.8	0.8	0.8	1.6	
학교별	인문계	53.0	38.0	2.4	1.2	0.0	5.4	12.68 *
	실업계	43.1	49.2	4.1	1.5	1.0	1.0	
합계		47.6	44.0	3.3	1.4	0.6	3.0	100(361명)

* p<.05

- ① 경제적 여유 ② 사회생활 경험 ③ 새로운 친구
 ④ 진로선택에 도움 ⑤ 학교공부에 도움 ⑥ 기타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단점으로 학교공부에 방해(30.1%)를 들고 있으며,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27.1%)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집단의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34.7%)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26.3%)과 비교하여 아르바이트의 단점으로 학교공부에의 지장을 들고 있었으며, 아울러 성별로도 여자 청소년(38.2%)이 남자청소년(23.5%)에 비해 아르바이트와 학교 공부와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실업계 고

등학교 청소년들(36.9%)은 아르바이트의 최대의 단점으로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생활의 중심을 학교공부에 두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생활의 중심을 또래집단과 친구관계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표 IV-5>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인식(단점)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23.5	15.0	14.5	11.0	25.0	11.0	23.40 * * *
	여자	38.2	4.2	9.1	5.5	29.7	13.3	
학년별	1학년	34.2	5.4	13.5	7.2	25.2	14.4	20.01 *
	2학년	35.4	10.2	12.6	6.3	21.3	14.2	
	3학년	21.3	14.2	10.2	11.8	34.6	7.9	
학교별	인문계	34.7	7.8	17.4	7.8	15.6	16.8	32.04 * * *
	실업계	26.3	12.1	7.6	9.1	36.9	8.1	
합계		30.1	10.1	12.1	8.5	27.1	12.1	100(365명)

* p<.05 * * * p<.001

- ① 학교공부에 방해 ②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 ③ 주변의 시각이 부담
 ④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부족 ⑤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 부족 ⑥ 기타

2)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아미(2001)는 한국에서의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성인의 자원봉사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기보다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에 가까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김민(1999)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자발성, 공공성, 복지성, 무보수성, 자아실현성, 지속성, 계획성 그리고 민주의식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표 IV-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49.9	5.2	22.1	8.5	13.4	1.0	5.22(n.s)
	여자	53.0	3.5	20.2	9.6	11.4	2.3	
학년별	1학년	44.3	4.9	23.2	9.2	17.7	0.6	25.71 **
	2학년	54.8	5.5	19.9	8.9	9.2	1.7	
	3학년	56.5	1.9	20.3	8.7	9.7	2.9	
학교별	인문계	55.9	6.0	17.8	8.1	10.4	1.9	32.78 ***
	실업계	42.9	1.6	27.6	10.6	16.3	1.0	
합계		51.3	4.4	21.2	9.0	12.5	1.6	100(881명)

** p<.01 *** p<.001

- ① 과거에는 활동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② 현재 활동중 ③ 해 본적 없다
 ④ 하고 싶으나, 할 곳이 마땅히 없다 ⑤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⑥ 기타

이러한 특성들이 현실에서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며, 청소년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이 자원봉사활동과 직업의식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먼저, <표 IV-6>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들(51.3%)은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은 했으나,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시점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극히 적었다(4.4%). 이러한 비율은 본 연구자

(2002)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53.6%가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2)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4.9%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본 연구자의 조사결과와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와의 상이함은 조사대상자의 설정 및 응답방법의 차이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청소년들이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시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2)의 조사결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생활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70.8%)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한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 되어 있음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표 IV-7>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형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카이검증
성별	남자	45.8	31.1	1.8	5.5	10.6	1.5	3.7	18.84**
	여자	45.0	41.1	2.6	1.7	3.5	3.0	3.0	
학년별	1학년	47.6	34.8	2.4	4.9	4.3	1.8	4.3	14.06(n.s)
	2학년	48.4	32.9	1.9	3.3	7.0	2.3	4.2	
	3학년	37.8	41.7	2.4	3.1	11.8	2.4	0.8	
학교별	인문계	46.5	35.9	1.7	3.4	7.3	2.0	3.4	2.55(n.s)
	실업계	42.9	35.4	3.4	4.8	7.5	2.7	3.4	
합계		45.4	35.7	2.2	3.8	7.3	2.2	3.4	100(504명)

* * p<.01

- ① 일손돕기활동 ② 위문활동 ③ 학습지도활동
 ④ 캠페인활동 ⑤ 환경, 시설보존활동 ⑥ 보육, 탁아시설활동 ⑦ 기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손돕기활동(45.4%)과 위문활동(35.7%)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2002년도에 실시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조사결과(일손돕기활동 48.1%)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보다는 단순업무보조나 사무업무보조 등과 같은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사회를 학습,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장점)

(단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64.3	23.8	2.7	4.1	1.7	3.4	12.48 *
	여자	72.1	24.2	0.8	1.2	0.8	0.8	
학년별	1학년	66.3	23.8	1.7	5.0	0.0	3.3	10.50(n.s)
	2학년	68.9	23.7	2.3	1.4	1.8	1.8	
	3학년	68.1	24.6	1.4	2.2	2.2	1.4	
학교별	인문계	65.8	26.1	1.9	2.2	1.3	2.7	6.00(n.s)
	실업계	72.5	19.2	1.8	4.2	1.3	1.2	
합계		67.8	24.0	1.9	2.8	1.3	2.2	100(538명)

* p<.05

- ①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보람 ② 사회생활의 경험 축적 ③ 새로운 친구 사귀
④ 진로선택에 도움 ⑤ 학교공부에 도움 ⑥ 기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장점으로 어떠한 것들을 꼽고 있을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보람(67.8%)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64.3%)에 비해 여자청소년(72.1%)이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보람’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와 비경험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경험자 68.5% 비경험자 56.1%). 또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의 장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24.0%).

<표 IV-9>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단점)

(단위 :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17.2	6.2	8.9	21.6	27.5	18.2	20.90 * *
	여자	26.7	1.7	5.5	14.4	27.1	24.6	
학년별	1학년	20.5	5.7	10.8	17.0	21.0	24.4	18.82(n.s)
	2학년	20.4	3.2	6.5	19.4	27.8	22.7	
	3학년	24.4	3.7	4.4	18.5	34.8	14.1	
학교별	인문계	26.2	3.3	8.3	16.0	23.7	22.3	26.14 * * *
	실업계	11.0	6.1	5.5	23.8	35.4	18.3	
합계		21.4	4.2	7.4	18.4	27.3	21.1	100(527명)

* * p<.01 * * * p<.001

- ① 학교공부에 방해 ② 학교생활적응에 저해 ③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부족
 ④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 부족 ⑤ 직업모색에 도움이 되지 않음 ⑥ 기타

자원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은 향후 자신이 갖게 될 직업을 모색함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27.3%)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은 학교공부에 방해가 된다’(21.4%)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위의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이 학교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17.2%)에 비해 여자 청소년(26.7%)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11.0%)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청소년이(26.2%)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의 직업모색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35.4%)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청소년(23.7%)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의 직업모색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활동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특히, 졸업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체험활동에의 참여는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 그리고 특정한 직업으로부터 요구되는 자질, 또는 자격 등의 요인을 상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경험으로 여겨진다. 현재, 정부기관, 교육단체 및 기업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학생들에게 학교-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1일직업체험활동, 직업모색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직업선택관련 강연회, 취업준비프로그램, 산업연계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표 IV-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7.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강영배(2003)의 조사결과(16.0%)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지역사회, 기업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양질의 체험 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질의 기능인력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졸업후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이들이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14.5%)이 대학 진학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19.3%)에 비해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 고등교육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도 졸업후 취직보다는 졸업후 대학 진학으로 그 이행 경로를 선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10>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구 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16.8	83.2	0.48(n.s)
	여자	18.6	81.4	
학년별	1학년	17.3	82.7	2.10(n.s)
	2학년	16.0	84.0	
	3학년	20.9	79.1	
학교별	인문계	19.3	80.7	3.11(n.s)
	실업계	14.5	85.5	
합계		17.6	82.4	100(862명)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체험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직업흥미, 직업적성평가, 자기모색프로그램과 같은 직업모색프로그램이었다(54.9%). 그 다음으로 청소년단체, 시설 또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일직업체험활동(22.3%)이 많았으며, 직업내용을 소개해 주거나 직업선택을 위한 강연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2.6%로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일일 체험활동과 같은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상당 수 있으나(22.3%), 인턴십(internship)과 같은 장기적 체험 프로그램에는 극히 소수의 이들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3.4%).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현상은 고등학교 청소년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직업선택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들을 위해 제공되는 장기적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 아닐까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다.

<표 IV-11>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 참여 유형

(단위 :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27.8	51.5	8.2	7.2	2.1	3.1	9.22(n.s)
	여자	15.4	59.0	17.9	3.8	0.0	3.8	
학년별	1학년	18.8	54.7	17.2	9.4	0.0	0.0	17.60(n.s)
	2학년	22.6	61.3	11.3	1.6	0.0	3.2	
	3학년	26.5	46.9	8.2	6.1	4.1	8.2	
학교별	인문계	14.7	62.9	17.2	1.7	0.0	3.4	32.57 * * *
	실업계	37.3	39.0	3.4	13.6	3.4	3.4	
합계		22.3	54.9	12.6	5.7	1.1	3.4	100(175명)

* p<.05 ** p<.01 *** p<.001

① 일일직업체험활동 ② 직업모색프로그램 ③ 직업소개 및 모색과 관련된 강연회
④ 직업준비지원프로그램 ⑤ 산학연계프로그램 ⑥ 기타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떠할까? 청소년들은 직업체험활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어떠한 점들을 들고 있을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청소년들(56.9%)이 직업체험활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직업체험활동이 “자신의 적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24.5%).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위의 문항이 참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이든 직업체험활동에 참가해 본 청소년들은 직업체험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장점)

(단위 :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53.5	29.9	2.4	8.7	2.4	3.1	6.31(n.s)
	여자	69.1	16.0	1.2	8.6	2.5	2.5	
학년별	1학년	61.4	20.0	1.4	8.6	4.3	4.3	14.69(n.s)
	2학년	64.6	16.9	1.5	12.3	0.0	4.6	
	3학년	53.4	35.6	2.7	5.5	2.7	0.0	
학교별	인문계	68.8	17.6	1.6	8.8	0.8	2.4	14.33 *
	실업계	45.8	34.9	2.4	8.4	4.8	3.6	
합계		56.9	24.5	1.9	8.7	2.4	2.9	100(208명)

* p<.05

- ① 자신의 적성 모색에 도움 ② 사회생활의 경험 ③ 새로운 친구 사귀
④ 진로선택에 도움 ⑤ 취미와 특기 개발에 도움 ⑥ 기타

그렇다면, 그들은 직업체험활동의 단점으로 어떠한 점들을 들고 있을까? <표 IV-13>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5.9%)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18.9%)이 직업체험활동에의 참여가 학교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됨(30.6%)을 가장 큰 단점으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직업활동에의 참여가 자신의 직업모색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낮지 않았다는 점이다(17.9%).

<표 IV-13> 청소년의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인식(단점)

(단위 :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카이검증
성별	남자	13.3	12.5	12.5	21.9	19.5	20.3	24.65 ***
	여자	13.9	7.6	3.8	8.9	15.2	50.6	
학년별	1학년	15.5	11.3	5.6	7.0	19.7	40.8	21.45 *
	2학년	17.5	9.5	12.7	12.7	14.3	33.3	
	3학년	8.2	11.0	9.6	30.1	19.2	21.9	
학교별	인문계	18.9	8.2	6.6	7.4	18.0	41.0	33.79 ***
	실업계	5.9	14.1	12.9	30.6	17.6	18.8	
합계		13.5	10.6	9.2	16.9	17.9	31.9	100(207명)

* p<.05 * * * p<.001

- ① 학교공부에 방해 ② 학교생활에 방해 ③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부족
 ④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부족 ⑤ 직업모색에 도움이 되지 않음 ⑥ 기타

4)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50.7%)가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37.5%)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57.9%)이 동아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유무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김정주 외(2003)의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98.1%)에 관한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김정주 외의 조사에서는 교내 동아리활동을 포함한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유무를 물어보았기 때문이고,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학교밖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유무를 물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김정주 외의 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동아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14>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단위 : %)

구 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52.0	48.0	0.73(n.s)
	여자	49.1	50.9	
학년별	1학년	53.6	46.4	1.91(n.s)
	2학년	49.7	50.3	
	3학년	47.8	52.2	
학교별	인문계	57.9	42.1	32.34 * * *
	실업계	37.5	62.5	
합계		50.7	49.3	100(852명)

* * * p<.001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의 유형중에서 댄스, 음악, 노래 모임 등과 같은 예술 및 예능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22.3%), 그 다음으로 농구, 축구, 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관련동아리(19.8%), 자원봉사동아리(16.0%),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모임과 같은 학습관련 동아리(15.2%)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도 언급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실태에 관한 김정주 외(2003)의 조사결과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주 외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댄스(15.8%), 음악(13.2%), 전통놀이 동아리(탈춤·풍물 등, 10.2%)와 같은 유형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위와 같은 유형의 동아리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

(단위 :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카이검증
성별	남자	30.5	9.5	18.0	4.0	19.5	2.5	0.5	0.5	15.0	45.11 * * *
	여자	7.1	22.0	13.7	1.8	25.6	2.4	1.8	1.8	23.8	
학년별	1학년	17.7	16.3	21.1	3.4	21.1	1.4	0.7	0.7	17.7	12.51(n.s)
	2학년	22.1	13.1	9.7	2.1	24.8	3.4	1.4	1.4	22.1	
	3학년	19.7	17.1	18.4	3.9	19.7	2.6	1.3	1.3	15.8	
학교별	인문계	17.1	17.1	17.1	2.5	22.9	3.2	0.4	0.4	19.3	23.50 * *
	실업계	28.4	9.1	12.5	4.5	20.5	0.0	3.4	3.4	18.2	
합계		19.8	15.2	16.0	3.0	22.3	2.4	1.1	1.1	19.0	100(368명)

* * p<.01 * * * p<.001

- ① 스포츠관련동아리 ② 학습관련 동아리 ③ 자원봉사관련 동아리
 ④ 종교관련 동아리 ⑤ 예술 및 예능관련 동아리 ⑥ 국제교류관련 동아리
 ⑦ 진로준비관련 동아리 ⑧ 팬클럽활동관련 동아리 ⑨ 기타

5) 청소년의 단체활동 및 자치기구 참여 실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의 자료(2003년 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 368)에 의하면, 2003년 10월 현재 62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청소년 회원이 2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통계연보(2003)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친 인구가 7백8십만명 정도에 달해,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10.0% 정도만이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조사자료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의 차이는 청협의 조사

방법과 본 조사의 방법에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강영배 (2003)의 조사에서는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인 조사대상 고등 학생 중 5.0%만이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03년 강영배의 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현시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은 일부 청소년들만의 참여활동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15> 청소년의 단체활동 참여 경험 유무

(단위 : %)

구 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14.3	85.7	21.25 * * *
	여자	4.8	95.2	
학년별	1학년	11.7	88.3	9.02 * *
	2학년	11.7	88.3	
	3학년	4.5	95.5	
학교별	인문계	12.5	87.5	11.15 * * *
	실업계	5.3	94.7	
합계		10.0	90.0	100(560명)

* * p<.01 * * * p<.001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자치기구 참여활동의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998년 11월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청소년자치조직인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제도는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2003년부터 실시된 제3차 청소년육성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치기구조직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기구활동은 청소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표 IV-16>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중 5%미만의 청소년들만이 자치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청소년 자치기구활동은 아직까지는 소수의 청소년들, 즉 청소년대표자들을 위한 자치활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3차 청소년 육성기본계획에서 도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자치기구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청소년의 직업의식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표 IV-16> 청소년의 자치기구 참여 여부

(단위 : %)

구 분		참여경험 있음	참여경험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6.4	93.6	5.93 *
	여자	2.8	97.2	
학년별	1학년	6.0	94.0	1.90(n.s)
	2학년	4.4	95.6	
	3학년	3.4	96.6	
학교별	인문계	5.0	95.0	0.27(n.s)
	실업계	4.2	95.8	
합계		4.8	95.2	100(863명)

* p<.05

2.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분석결과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대한 성향을 남녀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색」과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M=18.45)이 여자 청소년(M=20.50)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혼란」 상태에 대해서도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해 보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자 M=23.89 여자 M=25.37). 또한, 자신의 직업을 장래의 일로 미루고자 하는 성향인 「유예」의 영역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M=19.08 여자 M=22.06).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한 매우 소극적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안일」의 영역에서도 남자청소년(M=17.88)이 여자청소년(M=20.11)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강영배(2003)의 연구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에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높으며, 직업결정을 장래의 일이 아닌 현재 자신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직업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직업결정을 현시점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미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표 IV-17>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 정도

항목	성별	사례수	M	SD	t
미숙	남	468	18.45	5.15	-5.71 * * *
	여	389	20.50	5.35	
혼란	남	451	23.89	5.92	-3.38 * * *
	여	372	25.37	6.57	
유예	남	472	19.08	4.39	-9.60 * * *
	여	384	22.06	4.65	
모색	남	478	12.46	3.13	-1.10
	여	392	12.69	2.94	
결정	남	481	10.91	3.07	1.57
	여	395	10.59	2.89	
안일	남	465	17.88	4.25	-7.47 * * *
	여	387	20.11	4.39	

* * * p<.001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성향을 학년별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예」 「안일」을 제외한 「미숙」 「혼란」 「모색」 「결정」의 4개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서는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장래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2학년 M=18.85 3학년 M=20.09). 또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2학년(M=5.87)이 1학년(M=6.14)과 3학년(M=6.89)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자신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모색」적 성향은 2학년(M=12.16)이 1학년(M=12.62)과 3학년(M=13.14)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함은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만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직업의식의 「결정」적 성향에 있어서는 1학년(M=10.80)과 2학년(M=11.06)에 비해 3학년(M=10.77)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학년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1학년에 비해 직업에 대한 모색적 성향은 강하나, 직업에 대한 결정 정도는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IV-18> 학년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학년	사례수	M	SD	F	LSD 검정
미숙	1학년	310	19.50	5.44	3.619 *	① ② ③
	2학년	342	18.85	5.11		①
	3학년	205	20.09	5.50		②
	계	857	19.38	5.34		③ ☆
혼란	1학년	293	24.55	6.14	6.401 **	① ② ③
	2학년	332	23.82	5.87		①
	3학년	198	25.82	6.89		②
	계	823	24.56	6.26		③ ☆ ☆
유예	1학년	315	20.46	4.73	1.155	① ② ③
	2학년	334	20.35	4.70		①
	3학년	207	20.46	4.86		②
	계	856	20.42	4.75		③
모색	1학년	319	12.62	2.96	62.313 ***	① ② ③
	2학년	341	12.16	3.04		①
	3학년	210	13.14	3.12		②
	계	870	12.57	3.05		③ ☆
결정	1학년	325	10.80	2.91	5.029 *	① ② ③
	2학년	344	11.06	3.03		①
	3학년	207	10.23	3.00		②
	계	876	10.77	2.99		③ ☆ ☆
안일	1학년	312	19.15	4.76	.898	① ② ③
	2학년	332	18.69	4.07		①
	3학년	208	18.84	4.56		②
	계	852	18.90	4.45		③

* p<.05 ** p<.01 *** p<.001

<표 IV-19> 학교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학교	사례수	M	SD	t
미숙	인문계	568	10.88	3.08	1.47
	실업계	308	10.56	2.83	
혼란	인문계	556	19.77	5.58	2.95 * *
	실업계	301	18.65	4.79	
유예	인문계	554	21.01	4.80	4.97 * * *
	실업계	302	19.34	4.45	
모색	인문계	531	24.87	6.04	1.94
	실업계	292	23.99	6.62	
결정	인문계	561	12.42	3.04	-1.85
	실업계	309	12.82	3.05	
안일	인문계	549	19.38	4.46	4.36 * * *
	실업계	303	18.01	4.30	

* * p<.01 * * * p<.001

학교별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결정성향을 분석한 결과, 「혼란」 「유예」 「안일」의 3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M=19.77)들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M=18.65)이 자신들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19.34)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21.01)에 비해 자신들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자하는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안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16.01)이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19.38)에 비해 직업결정 및 직업선택을 안일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내의 분위기

와 진로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대학진학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선택,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전공선택의 내용중에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결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로가 불명확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과 의사와는 거리가 먼 분야에 취직을 하며, 취직의 분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요하는 분야보다는 서비스직이나 제조업 등과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직업결정에 대한 동기부여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직업결정 및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해석을 해 볼 수 있겠다.

<표 IV-20> 학교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성적수준	사례수	M	SD	F	LSD 검정
미숙	상	216	20.46	5.46	17.73 * * *	① ② ③
	중	433	19.63	5.33		①
	하	171	17.36	4.76		②
	계	820	19.38	5.36		③ ☆ ☆
혼란	상	212	25.82	6.38	15.06 * * *	① ② ③
	중	416	24.71	6.23		①
	하	160	22.33	5.64		② ☆
	계	788	24.53	6.26		③ ☆ ☆
유예	상	213	20.61	4.82	4.60 * *	① ② ③
	중	433	20.73	4.84		①
	하	173	19.46	4.39		②
	계	819	20.53	20.43		③ ☆ ☆

모색	상	217	12.49	3.17	.21	① ② ③
	중	441	12.58	3.05		①
	하	176	12.69	2.95		②
	계	834	12.58	3.06		③
결정	상	221	9.89	2.91	22.38 * * *	① ② ③
	중	443	10.77	2.99		①
	하	175	11.88	2.87		② ☆
	계	839	10.77	3.02		③ ☆ ☆
안일	상	214	19.44	4.61	14.75 * * *	① ② ③
	중	435	19.29	4.32		①
	하	170	17.28	4.36		②
	계	819	18.91	4.48		③ ☆ ☆

* * p<.01 * * * p<.001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학교성적에 따른 직업의식 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색」의 영역을 제외한 「미숙」 「혼란」 「유예」 「결정」 「안일」의 5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즉 「미숙」의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이 ‘하’ (M=17.36)인 청소년집단이 학교성적이 ‘중’(M=19.63), ‘고’(M=20.46)인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이 아직 미숙하며 장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도 「미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하’ (M=22.33)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중’(M=24.71), ‘고’(M=25.82)인 집단에 비해 직업선택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향은 「유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학교성적 ‘하’ M=19.46 학교성적 ‘중’ M=20.73 학교성적 ‘상’ M=20.61). 즉,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직업선택의 유예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정도

도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교성적 ‘하’ M=17.28 학교성적 ‘중’ M=19.29 학교성적 ‘상’ M=20.61). 반대로, 직업의식의 결정 정도에 있어서는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결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성적 ‘상’ M=9.89 학교성적 ‘중’ M=10.77 학교성적 ‘하’ M=11.88).

<표 IV-21>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학년	사례수	M	SD	F	LSD 검정
미숙	진학	680	19.95	5.31	27.80 * * *	① ② ③
	취직	54	18.74	5.37		①
	미결정	111	16.01	4.18		②
	계	845	19.35	5.34		③ ☆ ☆
혼란	진학	658	25.02	6.33	13.51 * * *	① ② ③
	취직	47	24.98	5.98		①
	미결정	108	21.69	5.24		②
	계	813	24.57	6.27		③ ☆ ☆
유예	진학	676	20.92	4.73	23.57 * * *	① ② ③
	취직	55	19.96	4.16		①
	미결정	113	17.73	3.97		②
	계	844	20.43	4.72		③ ☆ ☆
모색	진학	689	12.53	3.13	1.53	① ② ③
	취직	54	13.20	2.35		①
	미결정	116	12.34	2.73		②
	계	859	12.55	3.04		③
결정	진학	695	10.45	2.93	23.80 * * *	① ② ③
	취직	54	11.30	2.82		①
	미결정	115	12.43	2.84		②
	계	864	10.77	2.98		③ ☆ ☆
안일	진학	677	19.26	4.44	15.76 * * *	① ② ③
	취직	52	18.75	4.24		①
	미결정	111	16.76	3.86		②
	계	840	18.90	4.43		③ ☆ ☆

* * * p<.001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성향을 분석한 결과, 「미숙」 「혼란」 「유예」 「결정」 「안일」의 5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서는 진로미결정자 집단(M=16.01)이 진학(M=19.95) 및 취직(M=18.74)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해 하며, 어떠한 직업을 선택 및 결정해야 할 지 모르는 「혼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학 M=25.02 취직 M=24.98 미결정 M=21.69).

또한, 진로미결정자집단은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진학 M=20.92 취직 M=19.96 미결정 M=17.73), 직업결정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학 M=19.26 취직 M=18.75 미결정 M=16.76). 반면, 직업결정적 성향은 미결정집단(M=12.43)이 진학(M=10.45) 및 취직(M=13.20)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청소년들 중 학교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직업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래에 대한 목표의 부재는 직업미결정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가정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정도에 부모 및 가정적 특성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수입(월수입의 정도)과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의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의 경제적 수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정도의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모색」을 제외한 「미숙」 「혼란」 「유예」 「결정」 「안일」의 5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의식의 「미숙」 함의 정도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즉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 결정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었다(수입 ‘고’ $M=18.65$ 수입 ‘중’ $M=19.14$ 수입 ‘저’ $M=20.67$).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수입 ‘고’ $M=23.71$ 수입 ‘중’ $M=24.35$ 수입 ‘저’ $M=25.90$). 또한,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의 과제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고’ ($M=19.85$)인 청소년집단이 경제적 수입이 ‘저’ ($M=21.44$)인 청소년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결정적 성향은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안일」(수입 ‘고’ $M=18.17$ 수입 ‘중’ $M=18.98$ 수입 ‘저’ $M=19.92$)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의 수입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직업의식의 결정적 성향에 있어서는 부모의 수입이 적은 집단($M=10.02$)이 그렇지 않은 집단(수입 ‘고’ $M=10.74$ 수입 ‘중’ $M=11.09$)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결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수입 정도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부모의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나아가 직업결정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적은 청소년집단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IV-22> 부모의 경제적 수입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수입정도	사례수	M	SD	F	LSD 검정
미숙	고	220	18.75	5.27	5.26 * *	① ② ③
	중	327	19.14	5.42		①
	저	119	20.67	5.21		②
	계	666	19.28	5.37		③ ☆ ☆
혼란	고	216	23.71	6.09	4.57 *	① ② ③
	중	306	24.35	6.71		①
	저	118	25.90	5.84		②
	계	640	24.42	6.39		③ ☆ ☆
유예	고	223	19.85	5.31	4.49 *	① ② ③
	중	324	20.54	4.34		①
	저	119	21.44	4.48		②
	계	666	20.47	4.74		③ ☆
모색	고	225	12.78	3.02	1.76	① ② ③
	중	331	12.44	2.96		①
	저	123	12.17	3.26		②
	계	679	12.50	3.04		③
결정	고	225	10.74	3.01	5.74 * *	① ② ③
	중	331	11.09	3.12		①
	저	124	10.02	2.82		②
	계	680	10.78	3.05		③ ☆ ☆
안일	고	221	18.17	4.51	6.02 * *	① ② ③
	중	325	18.98	4.52		①
	저	117	19.92	4.31		② ☆
	계	663	18.88	4.51		③ ☆

* p<.05 * * p<.01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수준과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정도 사이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먼저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고졸과 대졸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모색」을 제외한 「미숙」 「혼란」 「유예」 「결정」 「안일」의 5가지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의식의

「미숙」함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고졸 M=19.00 대졸 M=20.97). 그리고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인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도 「미숙」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졸 M=24.27 대졸 M=25.76).

다른 한편, 청소년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고졸 M=20.28 대졸 M=21.44)과 안일한 정도(고졸 M=18.71 대졸 M=19.99)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에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대졸이상의 청소년집단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고졸인 청소년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대졸 M=12.13 고졸 M=10.92).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미결정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표 IV-25>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학력수준	사례수	M	SD	t
미숙	고졸	626	19.00	5.39	-3.98 * * *
	대졸	145	20.97	5.28	
혼란	고졸	604	24.27	6.43	-2.50 *
	대졸	138	25.76	5.82	
유예	고졸	627	20.28	4.80	-2.63 * *
	대졸	142	21.44	4.64	
모색	고졸	640	12.65	12.65	1.87
	대졸	144	12.13	12.13	
결정	고졸	639	10.92	3.07	2.72 * *
	대졸	148	10.17	2.74	
안일	고졸	628	18.71	4.58	-3.02 * *
	대졸	140	19.99	4.20	

* p<.05 * * p<.01 * * * p<.001

그렇다면,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 정도와는 어떠한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색」과 「결정」을 제외한 「미숙」 「혼란」 「유예」 「안일」의 4가지 영역에 있어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 정도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 정도간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으며, 직업결정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하고, 게다가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소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직업결

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26>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의식 성향

항목	학력수준	사례수	M	SD	t
미숙	고졸	500	18.83	5.45	-4.13 * * *
	대졸	262	20.53	5.23	
혼란	고졸	481	23.92	6.61	-3.28 * * *
	대졸	251	25.53	5.70	
유예	고졸	506	20.08	4.44	-3.69 * * *
	대졸	255	21.42	5.31	
모색	고졸	513	12.65	3.12	1.43
	대졸	264	12.31	3.00	
결정	고졸	511	10.90	3.04	1.72
	대졸	268	10.51	3.02	
안일	고졸	499	18.41	4.50	-4.66 * * *
	대졸	261	20.01	4.46	

* * * p<.001

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의 관계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조사하여, 아르바이트,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의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 경험이 자신들의 직업선택 및 결정과 어떠한 연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청소년 자신들의 직업의식 결정과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IV-27> 아르바이트 참여와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정
성별	남자	6.6	24.5	68.9	.87(n.s)
	여자	4.4	24.4	71.3	
학년별	1학년	6.6	22.6	70.8	.88(n.s)
	2학년	4.7	26.8	68.5	
	3학년	5.7	23.6	70.7	
학교별	인문계	3.0	23.0	73.9	4.62(n.s)
	실업계	7.9	25.7	66.5	
합계		8.1	33.3	58.6	100(532명)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자신들의 직업선택 연관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1%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지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일정 부분 자신의 직업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3.3%였으며,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8.6%로, 응답자의 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실제 자신들의 직업선택과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하나,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청소년들인 긍정적평가집단과 다른 한편으로, 아르바이트는 단지 자신들의 용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소모적 형태의 일에 대한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적 평가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IV-28> 아르바이트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 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320	19.21	5.22	-.64
	경험 무	533	19.45	5.42	
혼란	경험 유	305	24.89	6.61	1.22
	경험 무	514	24.33	6.06	
유예	경험 유	323	19.92	5.15	-2.33 *
	경험 무	529	20.70	4.47	
모색	경험 유	322	12.74	3.00	1.35
	경험 무	544	12.45	3.08	
결정	경험 유	324	10.44	2.90	-2.53 *
	경험 무	548	10.97	3.04	
안일	경험 유	317	18.71	4.51	-.89
	경험 무	531	18.99	4.42	

* p<.05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직업결정의식 사이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IV-2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예」 「결정」의 두 가지 영역에서 경험 집단과 비경험집단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M=19.92)이 비경험집단(M=20.70)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김병숙 외의 주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일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결정」의 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집단(M=10.44)이 비경험집단(M=10.97)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유예」적 성향과 충돌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은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도 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그다지 의미있는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표 IV-29>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직업선택간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정
성별	남자	9.9	28.8	61.3	7.46 *
	여자	5.8	38.8	55.4	
학년별	1학년	9.5	34.6	55.9	2.03(n.s)
	2학년	7.9	34.0	58.1	
	3학년	6.5	30.4	63.0	
학교별	인문계	8.2	37.1	54.8	8.15 *
	실업계	7.9	24.8	67.3	
합계		8.1	33.3	58.6	100(532명)

* p<.05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직업선택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자원봉사활동이 자신의 직업선택과 강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자의 8.1%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33.3%이며, 나머지 58.6%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직업선택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들(61.3%)이 여자청소년들(55.4%)에 비해 그리고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M=67.3%)이 인문계 고등학교

의 청소년들(M=54.8%)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무용론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0>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 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471	20.21	5.38	5.33 * * *
	경험 무	362	18.25	5.03	
혼란	경험 유	458	25.22	6.48	3.51 * * *
	경험 무	342	23.66	5.80	
유예	경험 유	468	20.93	4.44	3.33 * * *
	경험 무	363	19.83	5.03	
모색	경험 유	476	12.25	3.09	-3.53 * * *
	경험 무	368	12.98	2.86	
결정	경험 유	480	10.37	2.95	-4.45 * * *
	경험 무	371	11.28	3.00	
안일	경험 유	470	19.34	4.52	3.59 * * *
	경험 무	371	18.23	4.26	

* * * p<.001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와 직업의식 결정 정도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숙」 「혼란」 「유예」 「모색」 「결정」 「안일」의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집단(M=20.21)이 비경험자집단(M=18.2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경험자집단(M=23.66)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에 관한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비경험자집단(M=19.83)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찬가지로

로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 정도를 설명해주는 「안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활동 비경험자집단(M=18.23)이 경험자집단(M=19.3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집단(M=10.37)이 비경험자집단(M=11.28)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결정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그들의 직업의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31> 직업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선택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27.6	45.5	26.8	2.27(n.s)
	여자	21.3	56.3	22.5	
학년별	1학년	27.9	48.5	23.5	7.66(n.s)
	2학년	25.0	59.4	15.6	
	3학년	22.5	42.3	35.2	
학교별	인문계	26.6	56.5	16.9	11.66 * *
	실업계	22.8	39.2	38.0	
합계		25.1	49.8	25.1	100(203명)

* * p<.01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참여한 직업체험활동이 직업선택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있을까? 본 조사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6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중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영역에서 청소년들은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이 직업선택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강한 연관성 25.1%, 약한 연관성 49.8, 연관성 없음 25.1%).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해

직업체험활동이 구체적인 직업내용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직업의식간의 관련성에 대한 조아미(2001)의 견해에 따르면,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과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특히 자신에게 있어서 직업적 흥미가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적 흥미를 느끼게 하는 또는 직업적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직업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elson(1990)은 자신의 연구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자신의 직업적 흥미가 있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진로에 대한 성숙도가 높으며,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IV-32> 직업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 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145	20.57	5.77	2.79 * *
	경험 무	683	19.21	5.21	
혼란	경험 유	143	24.92	24.92	.71
	경험 무	653	24.51	24.51	
유예	경험 유	142	21.35	4.56	2.33 *
	경험 무	685	20.35	4.70	
모색	경험 유	144	12.28	3.29	-1.30
	경험 무	695	12.64	2.98	
결정	경험 유	148	10.02	2.93	-3.30 * * *
	경험 무	701	10.91	3.00	
안일	경험 유	144	19.74	4.42	2.36 *
	경험 무	679	18.78	4.44	

* p<.05 * * p<.01 * * * p<.001

그렇다면, 직업의식 결정정도와 직업체험활동 경험 유무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두 집단간에 「미숙」 「유예」 「결정」 「안일」의 4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먼저, 「유예」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M=20.35)이 비경험집단(M=20.3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경험집단(M=18.78)은 경험집단(M=19.7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결정」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집단(M=10.02)이 비경험집단(M=10.91)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앞서도 언급한 조아미와 Nelson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V-33> 동아리활동 참여와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16.7	30.1	53.1	11.56 * *
	여자	11.9	46.3	41.8	
학년별	1학년	14.4	34.4	51.3	3.56(n.s)
	2학년	12.9	36.8	50.3	
	3학년	17.8	41.6	40.6	
학교별	인문계	11.8	38.9	49.3	7.98 *
	실업계	22.7	31.8	45.5	
합계		14.7	37.0	48.3	100(416명)

* p<.05 * * p<.01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내와 학교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자신들의 직업선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조사결

과 응답자의 14.7%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7.0%가 약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는 달리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청소년도 48.3%나 되었다.

위의 응답결과를 남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여자청소년들(57.2%)이 남자청소년들(46.8%)에 비해 동아리활동의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남자청소년들(53.1%)이 여자청소년들(41.8%)에 비해 동아리활동의 참여 경험이 자시의 직업선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높았다.

<표 IV-34>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 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419	19.68	5.40	1.35
	경험 무	398	19.17	5.28	
혼란	경험 유	401	24.74	6.14	.58
	경험 무	386	24.48	6.42	
유예	경험 유	418	20.63	4.57	.77
	경험 무	402	20.38	4.86	
모색	경험 유	424	12.34	3.07	-2.32 *
	경험 무	406	12.83	2.99	
결정	경험 유	427	10.69	3.05	-.91
	경험 무	408	10.88	3.00	
안일	경험 유	414	19.26	4.45	1.94
	경험 무	399	18.65	4.46	

* p<.05

<표 IV-3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반정도가 동아리활동의 참여 경험이 자신의 직업선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과 직업의식 결정성향간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조사 결과

「모색」의 영역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동아리활동 참여집단(M=12.34)이 비참여집단(M=12.8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만으로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동아리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직업결정을 위한 모색 노력이 강한 것은 동아리활동의 참여 동기가 자신의 취미와 흥미, 적성을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참여활동이 직업선택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 IV-35> 청소년단체활동 참여와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증
성별	남자	12.3	33.3	54.3	.40(n.s)
	여자	8.7	39.1	52.2	
학년별	1학년	8.7	28.3	63.0	4.01(n.s)
	2학년	15.9	40.9	43.2	
	3학년	7.1	35.7	57.1	
학교별	인문계	11.8	32.9	55.3	.37(n.s)
	실업계	10.7	39.3	50.0	
합계		11.5	34.6	53.8	100(104명)

청소년단체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사대상자 중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지 않고(104명), 집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단, 참여 경험자들 중 46.1%는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이 자신의 직업선택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단체활동의 경험내용 중에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요소

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즉, 경험내용이 구체적인 직업적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청소년단체라는 하나의 조직을 통하여 사회생활 또는 성인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경험들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V-36> 청소년단체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 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86	18.37	5.33	-2.01
	경험 무	739	19.60	5.37	
혼란	경험 유	78	24.08	5.68	-.83
	경험 무	717	24.70	6.34	
유예	경험 유	83	19.52	4.63	-2.11 *
	경험 무	743	20.66	4.69	
모색	경험 유	84	11.99	3.04	-1.86
	경험 무	755	12.64	3.05	
결정	경험 유	86	10.62	3.12	-.52
	경험 무	757	10.80	3.01	
안일	경험 유	82	18.65	4.46	-.73
	경험 무	741	19.02	4.43	

* p<.05

청소년단체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결정 성향을 분석한 결과, 「유예」의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집단(M=19.52)이 비경험집단(M=20.66)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IV-37> 청소년 자치기구 참여와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구 분		강한 연관성	약한 연관성	연관성 없음	카이검정
성별	남자	19.5	19.5	61.0	.21(n.s)
	여자	18.8	25.0	56.3	
학년별	1학년	14.8	25.9	59.3	4.36(n.s)
	2학년	15.0	15.0	70.0	
	3학년	40.0	20.0	40.0	
학교별	인문계	16.2	24.3	59.5	1.06(n.s)
	실업계	25.0	15.0	60.0	
합계		19.3	21.1	59.6	100(57명)

<표 IV-38> 청소년자치기구 참여에 따른 직업의식성향

항목	경험유무	사례수	M	SD	t
미숙	경험 유	40	17.85	5.53	-1.89
	경험 무	787	19.49	5.33	
혼란	경험 유	36	24.06	5.92	-.54
	경험 무	761	24.63	6.30	
유예	경험 유	38	18.68	4.88	-2.40 *
	경험 무	789	20.56	4.70	
모색	경험 유	39	12.74	2.77	.38
	경험 무	802	12.55	3.04	
결정	경험 유	41	10.44	3.15	-.67
	경험 무	805	10.76	2.99	
안일	경험 유	39	18.33	4.05	-.92
	경험 무	788	19.00	4.44	

* p<.05

마지막으로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자치기구활동 경험이 직업선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청소년단체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치기구활동 참여 경험자가 57명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직업선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연관성(강한 연관성+약한 연관성)을 있다고 보는 청소년들이 40.4%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는 청소년들(59.6%)에 비해 적었다.

끝으로, 청소년자치기구 참여활동 유무에 따라 직업의식결정 성향을 분석한 결과, 「유예」적 성향에 있어 두 집단에 성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치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M=18.68)이 비경험집단(M=20.56)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청소년자치기구 경험 자체가 직업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역사가 짧으며, 아직 체계화 또는 정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경험이 직업결정과의 관련성에 있어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3. 향후 연구과제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중의 하나인 직업의식의 형성에 있어,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체험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실증적으로 그 관계성에 대한 규명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경기의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첫 일자리 진입기간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의식도 상당부분 혼란스러워하거나 유예적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下山(1986)가 개발한 직업의식 미결정척도를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심리, 사회학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정치적 자기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참여자로서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는 있으나, 직업의식형성과 관련해서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참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사회

참여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실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체험활동을 구체화하여, 즉 사회참여활동의 유형을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활동,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참여활동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 확인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별, 학교별, 학교성적, 진로결정 여부)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모색」과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M=18.45)이 여자 청소년(M=20.50)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혼란」상태에 대해서도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해 보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자M=23.89, 여자M=25.37). 또한, 자신의 직업을 장래의 일로 미루고자 하는 성향인 「유예」의 영역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M=19.08, 여자M=22.06).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한 매우 소극적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안일」의 영역에서도 남자청소년(M=17.88)이 여자청소년(M=20.11)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예」, 「안일」을 제외한 「미숙」, 「혼란」, 「모색」, 「결정」의 4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서는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장래 자

신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2학년 M=18.85 3학년 M=20.09). 또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2학년(M=5.87)이 1학년(M=6.14)과 3학년(M=6.89)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자신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모색」적 성향은 2학년(M=12.16)이 1학년(M=12.62)과 3학년(M=13.14)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별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결정성향을 분석한 결과, 「혼란」, 「유예」, 「안일」의 3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M=19.77)들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M=18.65)이 자신들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19.34)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21.01)에 비해 자신들의 직업결정을 나중에 미루고자 하는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직업의식 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숙」의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이 ‘하’(M=17.36)인 청소년집단이 학교성적이 ‘중’(M=19.63), ‘고’(M=20.46)인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이 아직 미숙하며 장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도 「미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하’(M=22.33)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중’(M=24.71), ‘고’(M=25.82)인 집단에 비해 직업선택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향은 「유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학교성적 ‘하’M=19.46, 학교성적 ‘중’M=20.73, 학교성적 ‘상’M=20.61).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직업선택의 유예적 성향이 강하

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교성적 ‘하’ $M=17.28$, 학교 성적 ‘중’ $M=19.29$, 학교성적 ‘상’ $M=20.61$). 반대로, 직업의식의 결정 정도에 있어서는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결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성적 ‘상’ $M=9.89$, 학교성적 ‘중’ $M=10.77$, 학교성적 ‘하’ $M=11.88$).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로결정여부도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중 학교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진학이나 취직을 결정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서도 미숙하며,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할 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나아가 직업결정 및 모색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정도에 부모 및 가정적 특성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수입(월수입의 정도)과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의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의 경제적 수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정도의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의식의 「미숙」함의 정도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즉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었다(수입 ‘고’ $M=18.65$, 수입 ‘중’ $M=19.14$, 수입 ‘저’ $M=20.67$).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수입 ‘고’ $M=23.71$, 수입 ‘중’ $M=24.35$, 수입 ‘저’ $M=25.90$). 또한,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의 과제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고’($M=19.85$)인 청소년집단이 경제적 수입이 ‘저’($M=21.44$)인 청소년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결정적 성향은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

도를 취하고 있는 「안일」(수입 ‘고’M=18.17, 수입 ‘중’M=18.98, 수입 ‘저’M=19.92)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의 수입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도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고졸M=19.00, 대졸M=20.97). 그리고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인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졸M=24.27, 대졸M=25.76).

다른 한편, 청소년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고졸M=20.28, 대졸M=21.44)과 안일한 정도(고졸M=18.71, 대졸M=19.99)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으며, 직업결정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하고, 게다가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소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직업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아르바이트 경험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M=19.92)이 비경험집단(M=20.70)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정」의 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집단(M=10.44)이 비경험집단(M=10.97)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유예」적 성향과 충돌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은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도 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그다지 의미있는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와 직업의식 결정 정도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숙」, 「혼란」, 「유예」, 「모색」, 「결정」, 「안일」의 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집단(M=20.21)이 비경험자집단(M=18.2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경험자집단(M=23.66)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에 관한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비경험자집단(M=19.83)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찬가지로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 정도를 설명해주는 「안일」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경험자집단(M=18.23)이 경험자집단(M=19.3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집단(M=10.37)이 비경험자집단(M=11.28)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결정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그들의 직업의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직업체험활동 경험도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예」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M=20.35)이 비경험집단(M=20.3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경험집단(M=18.78)은 경험집단(M=19.7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결정」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집단(M=10.02)이 비경험집단(M=10.91)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앞서서도 언급한 조아미(2001)와 Nelson(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그리고 자치기구활동도 일정 부분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동아리활동 경험에서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M=12.34)이 비참여 집단(M=12.8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과 자치기구 참여 경험 유무도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조사대상자 중 청소년단체 및 자치기구 참여 경험자가 10%미만이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제언

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련성에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체험활동의 내용, 특징, 효과 등에 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각 체험활동의 특징들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아르바이트,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활동 경험이 직업의식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에서는 결정요인으로 학교성적과 학교수준과 같은 학교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자기의사결정요인과 같은 요인들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및 가정적 요인과 아울러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직업의식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성 향상의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와 청소년지도자, 교사들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직업의식형성과도 연계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정치적 참여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체험을 통한 경제적 참여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인간에게 있어 일, 즉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 짓는 중요한 바로미터의 하나가 경제적 자립의 여부인데,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직업선택 및 결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국 청소년

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으며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용-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당연시 하며, 심지어는 결혼비용까지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은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지도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및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체험이 직업선택과 직업의식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경험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생활 및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성적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단순 업무 보조, 배달, 서빙 등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체험이 장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경험의 전이(experiential transfer)’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일에 대한 체험’ 그 자체가 가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간접적 경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가치가 인

정될 수 있겠으나, 그들의 경험이 가지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에 대한 체험 기회에 대해 제공자인 기업(성인)과 참여자인 청소년의 상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비용의 절감효과를 노려 싼 값의 노동자(청소년)를 고용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사회생활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비욕구의 충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분야, 직업적 흥미를 체험, 확인하는 기회로서 아르바이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 및 직업선택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결정은 학교만의 역할로 한정해 온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는 대학 진학이지 진작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역사회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역할에 소극적이며, 청소년수련시설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이며 성과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은 학교 교육의 보완적 차원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업의식발달과 같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 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인데, 청소년시설이 주축이 되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행정당국 및 기업의 네트워크 구성을 구성하며, 각 구성요소

들간의 역할 조열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결정의식을 사회참여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한 내용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참여유무, 직업선택과의 관계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내용, 참여정도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의식을 사회참여활동요인과 학교요인, 가정적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식에 대하여 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차기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의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최근 청소년들의 직업미결정성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일본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도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 검토하고 있으나, 차기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사회참여활동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인 차원에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영배(2001). 일본 청소년의 이행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일본연구, 9 : 1-28.
- 강영배(2002). 일본 청소년의 직업의식 변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청소년지도학연구, 2(2) : 181-206.
- 강영배(2002). 청소년의 사회참가경험이 직업의식 미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지도학연구, 4(1) : 119-146.
- 강영배(2004).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다면적 고찰 및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11(2) : 163-183.
- 강재태·양재석(2001). 고등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미결정 유형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0(2) : 51-65.
- 권일남(2001).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 117-130.
- 김기현(2002). 한국 사회의 교육체계와 첫 일자리 진입 : 학교-직업 이행(STW)의 제도적 결정요인들.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주·김용대·성기원(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주·임지연(1999). 청소년 동아리활동.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성호(2003).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 정책적 함의.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종훈(1999). 진로미결정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화관광부(2003). 청소년백서.
- 양한주(1998). 중·고등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치선(2000).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유홍준(2002). 직업사회학. 경문사.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이미 이해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3(2) : 25-39.
- 이광호 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실태 및 정책방안 모색 연구. 문화관광부.
- 이철위 외(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형하 · 이용교(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1), pp. 89-100.
- 장원섭(2000).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 : 1-27.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20(2) : 95-108.
- 장원섭 · 김형만 · 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1) :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동기 외(2000).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진로결정유형. 인문과학연구논총, 23 : 131-144.

- Borgen, F. H.(1986), New approaches to the assessment of interests, In W. B. Walsh and S. H. Osipow(Eds), *Advances in vocational psychology : The assessment of interest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83-126.
- Carr, R. V., J. D. Wright ad C. J. Brody(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 Evidence from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 66-81.
- Eccles J. S. et al.(1991), Expectancy Effects Are Alive and Well on the Home Fro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Ginzberg. E.(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inzberg. E. et al.(1969), *Occupational Choi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 326-339.
- Hansen. D. M · Jarvis P. A(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31(4) : 417-436.
- Hodson. R · Sullivan T.(2002),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 CA: Wardworth Publishing Co.

-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 E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Hunter, J. E.(1986), Cognitive ability, Cognitive aptitude, Job knowledge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 340-362.
- Nelson. K. K(1990), How relevant career experiences influence career decision mak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3 305)
- Ospipow. S. H·Walsh. W. B(1995), *Vocational Psycholog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hillips, s. & Sandstrom, K. L.(1990). Parental attitudes toward you work, *Youth and Society*, 22: 160-183.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伊藤一雄(1998), 職業と人間形成の社会学：職業教育と進路指導, 東京: 法律文化社.
- 尾嶋史章 編著(2001), 現代高校生の計量社会学：進路・生活・世代, 京都: ミエルヴァ書房.
- 尾高邦雄(1995), 職業社会学, 東京: 夢窓庵.
- 荻谷剛彦 外(1997). 進路未決定者の構造：高卒進路未決定者の析出メカニズムに関する実証的研究, 東京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37 : 45-75.
- 姜永培(2004), 韓國における青少年の職業意識構造に関する研究, 東北大學大学院博士論文.
- 玄田有史(2002), 同質社会の終焉. 中央公論 7月号 89-97.

- 小杉礼子(2001), 高卒就職現象と学校における進路指導の問題点, 青少年問題, 45(6) : 10-15.
- 小杉礼子(2003), 自由の代償, 東京: 日本労働研究機構.
- 小杉礼子・堀有喜衣(2003), 学校から職業への移行を支援する諸機関へのヒアリング調査結果: 日本におけるNEET問題の所在と対応, *JIL Discussion Paper Series* 03-001.
- 高橋満(1999), 青少年政策の新傾向, 青少年指導及び社会教育政策に関する韓・日・中学術シンポジウム資料, 韓国青少年指導学会.
- 耳塚寛明 外(2000), 高卒無業者の教育社会学的研究 平成11~平成12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 C(2).
- 柳井修(2001), キャリア発達論: 青年期のキャリア形成と進路指導の展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 矢島正見・耳塚寛明 編著(2001), 変わる若者と職業世界: トランジッションの社会学, 東京: 学文社.
- 宗方比佐子・渡辺直登 編著(2003), キャリア発達の心理学, 東京: 川島書房.
- 宮内博 編著(1992), 学校進路指導概論: ひとりひとりの価値観を尊重する, 東京: 文雅堂研究社.

부 록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에
관한 의식 조사

부
록

<부록>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에 관한 의식 조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에 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조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요소들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며, 그 설명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직업의식 구조의 규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자료는 컴퓨터를 통해 처리될 것임으로, 타인에게 공개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답변이 질 높은 연구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4년 6월

한국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원(교육학박사)

강 영 배

- ④ 하고 싶으나, 마땅히 할 곳이 없다
- 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으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
- ⑥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6-1.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습니까?

(질문 6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①, ②)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

- ① 서비스관련(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식당 서빙, 배달 등)
- ② 육체노동 관련(공장 작업 보조, 건설 현장 인부 등)
- ③ 교육관련(가정교사, 학원강사, 학생지도 등)
- ④ 가사 보조
- ⑤ 사무보조(공공기관 및 단체, 일반 기업의 사무실 등)
- ⑥ 신문 및 전단지 배포
- ⑦ 기타 ()

6-2. 아르바이트로 버는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또는 얼마였습니까)?

(질문 6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①, ②)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 ③ 100-200만원 ④ 200만원이상
- ⑤ 기타 ()

6-3. 아르바이트 경험이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⑥ 기타 ()

6-4. 아르바이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 ②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③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 ④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 ⑤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 ⑥ 기타 ()

6-5. 아르바이트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②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 ③ 아르바이트를 안 좋게 보는 주변의 시각이 부담스럽다
- ④ 가족과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⑤ 친구들과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
- ⑥ 기타 ()

7.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전에 해본 적이 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 ②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③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
- ④ 하고 싶으나, 마땅히 할 곳(할 일)을 찾지 못하겠다
- ⑤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 ⑥ 기타 ()

7-1.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봉사활동을 해 보셨나요?

(질문7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

- ① 일손 돕기 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 ② 위문활동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 ③ 학습지도활동 (아동지도, 학습부진 친구지도 등)
- ④ 캠페인활동 (금연, 금주, 마약 사용 금지 캠페인활동 등)
- ⑤ 환경, 시설 보존 활동(놀이터, 공원, 문화재보호, 자연보호 등)
- ⑥ 보육, 탁아 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 ⑦ 기타 ()

- ④ 직업 준비 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준비반, 직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⑤ 산학연계프로그램(정규직취직을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프로그램 등)
- ⑥ 기타 ()

8-2. 직업체험활동 경험이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⑥ 기타 ()

8-3. 여러분은 직업체험활동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적성을 탐색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 ② 사회 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③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 ④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 ⑤ 취미와 특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⑥ 기타 ()

8-4. 여러분은 직업체험활동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②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 ③ 가족과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④ 친구들과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
- ⑤ 직업 탐색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는다
- ⑥ 기타 ()

9. 당신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③ 기타()

9-1.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질문9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 단,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로 활동하는 항목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스포츠 관련 활동 동아리(농구, 축구, 야구, 검도, 태권도 등)
- ② 학습 관련 활동 동아리(스터디 그룹, 독서 모임 등)
- ③ 자원봉사 관련 활동 동아리
- ④ 종교 관련 동아리
- ⑤ 예술 및 예능 관련 동아리(댄스, 전통무용, 그룹사운드, 노래 모임)
- ⑥ 국제교류 관련 동아리
- ⑦ 진로 준비 관련 동아리
- ⑧ 팬클럽활동(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팬클럽에 가입하여 활동)
- ⑨ 기타 ()

9-2. 동아리 활동 경험이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⑥ 기타 ()

9-3. 동아리 활동 경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②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다
- ③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 ④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 ⑤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 ⑥ 기타 ()

9-4. 동아리 활동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②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 ③ 동아리 활동을 안 좋게 보는 주변의 시각이 부담스럽다
- ④ 가족과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하다

11. 여러분은 청소년 회의 또는 청소년 단체, 시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질문 11-1로 가 주세요)
 ② 활동하고 있지 않다

11-1. 자치기구 참여활동 경험이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11에서 자치기구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에게만 해당)

- ①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⑥ 기타 ()

11-2. 자치기구 참여활동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②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다
 ③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④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⑤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⑥ 기타 ()

11-3. 자치기구 참여활동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② 학교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③ 자치기구 참여활동에 대한 주변의 시각이 부담스럽다
 ④ 가족과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하다
 ⑤ 친구들과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
 ⑥ 기타 ()

12.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V 표 해주세요.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어느쪽도 아니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질 문 항 목	①	②	③	④	⑤
1.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계획은 착실하게 잘 준비되고 있다.					
2.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다.					
3. 가능하다면 직업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미루고 싶다.					
4.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 지 불안하다.					
5. 장래에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몇 가지 있으며, 그런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6.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직업의 종류는 개의치 않는다.					
7.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실현 단계에 있다.					
8. 자신이 어떠한 직업에 맞는 적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9. 직업 결정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아도, 그 질문에 대한 현실감이 별로 없다.					
10. 장래 자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을 지에 대한 모습(image)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11. 직업 결정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면, 심한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12. 최종적으로 직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여유가 있으며, 지금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13. 자신을 채용해 줄 회사라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4. 자신의 직업 결정에는 자신이 있다.					
15.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고 자주 계획이 바뀐다.					
16.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 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17. 지금까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직업 결정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면 불안해 진다.					

18. 직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직업을 결정하겠다.					
19. 가능하다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다.					
20.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					
21. 직업을 잘 못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22. 나는 언제나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직업만을 생각한다.					
23.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자신이 없다.					
24.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25.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몇 가지를 고른 상태이나, 꼭 집어 하나를 선택하지는 못하고 있다.					
26. 자신에게 있어 취직을 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27. 혼자서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28. 지금의 상태로는 일생동안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29. 장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다.					
30. 나는 어떤 때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들 때도 있으나, 반대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31.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 직업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다.					
32. 가능하다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직업을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33. 직업으로서 어떠한 일이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					
34. 직업에 관한 사항은 졸업할 무렵 생각해 보고 싶다.					
35. 가능하다면, 특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생활하고 싶다.					

-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이상
 ⑦ 수입 없음 ⑧ 기타()

15.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2년제) 졸업 ④ 대학(4년제) 졸업
 ⑤ 대학원졸업 ⑥ 기타

16.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2년제) 졸업 ④ 대학(4년제) 졸업
 ⑤ 대학원졸업 ⑥ 기타

17. 여러분의 학급에서의 성적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 ① 상 ② 중 ③ 하

18. 여러분의 장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아래의 항목 중 해당 항목의 번호 또는 구체적인 직업명을 기입해 주세요.

--

번호	직업명	번호	직업명	번호	직업명	번호	직업명
1	교사	13	건축가	25	항공승무원	37	인테리어디자이너
2	회사원	14	아나운서	26	상업	38	헤어 디자이너
3	의사	15	기자	27	광고인	39	성직자
4	공무원	16	그래픽디자이너	28	영화감독	40	의상 디자이너
5	엔지니어	17	정치가	29	프로그래머	41	비행기 조종사

6	법률가	18	가수	30	만화가	42	사진작가
7	주식투자가	19	배우	31	화가	43	약사
8	프로게이머	20	운동선수	32	개그맨	44	사회사업가
9	교수	21	간호사	33	작가	45	외교관
10	사업가	22	프로듀서	34	회계사	46	농업,수산업,임업
11	과학자	23	경찰	35	동시통역사	47	음악가
12	은행원	24	군인	36	코디네이터	48	기타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경기의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첫 일자리 진입기간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의식도 상당부분 혼란하거나 유예적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미결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下山(1986)가 개발한 직업의식 미결정척도를 연구자의 연구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심리, 사회학적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정치적 자기의사결정능력의 향상,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참여자로서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는 있으나, 직업의식형성과 관련해서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참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성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실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체험활동을 구체화하

여, 즉 사회참여활동의 유형을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활동,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참여활동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직업의식관련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설문조사, 내용분석,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한 관련 이론의 고찰. 청소년의 직업의식형성과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관련 연구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기반한 경제학적 관점과 발달론 특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 직업의식 및 직업선택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직업사회학적 접근,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관련 이론들에 대한 연구를 문헌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직업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회참가의 의의 및 의미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이해의 틀(scheme)을 바탕으로 실제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구조를 사회참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지역과 지방의 중소도시 한 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학교 형태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남녀 성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내용분석. 실제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는 활동들을 관찰과 면접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과 직업에 대한 의식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활동 현장을 찾아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생각과 직업에 대한 의식을 물음으로써 설문지 방법을 통한 의식의 계량화가 지니는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다.

3. 연구 결과

연구의 결과 확인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별, 학교별, 학교성적, 진로결정 여부)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모색」과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M=18.45)이 여자청소년(M=20.50)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하여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혼란」상태에 대해서도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해 보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자 M=23.89, 여자 M=25.37). 또한, 자신의 직업결정을 장래의 일로 미루고자 하는 성향인 「유예」의 영역에서도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M=19.08, 여자M=22.06).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한 매우 소극적 성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안일」의 영역에서도 남자청소년(M=17.88)이 여자청소년

년(M=20.11)에 비해 자신의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예」, 「안일」을 제외한 「미숙」, 「혼란」, 「모색」, 「결정」의 4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서는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장래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2학년M=18.85, 3학년M=20.09). 또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2학년(M=5.87)이 1학년(M=6.14)과 3학년(M=6.89)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자신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모색」적 성향은 2학년(M=12.16)이 1학년(M=12.62)과 3학년(M=13.14)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별 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의식결정성향을 분석한 결과, 「혼란」, 「유예」, 「안일」의 3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M=19.77)들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M=18.65)이 자신들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19.34)은 인문계 고등학교 청소년들(M=21.01)에 비해 자신들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자 하는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른 직업의식 결정 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숙」의 영역에서는 학교성적이 ‘하’(M=17.36)인 청소년집단이 학교성적이 ‘중’(M=19.63), ‘고’(M=20.46)인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이 아직 미숙하며 장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고,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미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하’(M= 22.33)

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중’(M=24.71), ‘고’(M=25.82)인 집단에 비해 직업선택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경향은 「유예」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성적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학교성적 ‘하’M=19.46, 학교성적 ‘중’M= 20.73, 학교성적 ‘상’M=20.61).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직업선택의 유예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학교성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교성적 ‘하’M=17.28, 학교성적 ‘중’M=19.29, 학교성적 ‘상’M= 20.61). 반대로, 직업의식의 결정 정도에 있어서는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결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성적 ‘상’M=9.89, 학교성적 ‘중’M= 10.77, 학교성적 ‘하’M=11.88).

고등학교 졸업후의 진로결정여부도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중 학교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진학이나 취직을 결정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서도 미숙하며,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할 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나아가 직업결정 및 모색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직업의식 결정정도에 부모 및 가정적 특성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수입(월수입의 정도)과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의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의 경제적 수입에 따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정도의 분석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의식의 「미숙」함의 정도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즉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 결정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었다(수입 '고'M=18.65, 수입 '중'M=19.14, 수입 '저'M=20.67).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많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수입 '고'M=23.71, 수입 '중'M=24.35, 수입 '저'M=25.90). 또한,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의 과제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고'(M=19.85)인 청소년집단이 경제적 수입이 '저'(M=21.44)인 청소년집단에 비해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결정적 성향은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안일」(수입 '고'M=18.17, 수입 '중'M=18.98, 수입 '저'M=19.92)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의 수입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도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고졸M=19.00, 대졸M=20.97). 그리고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태인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졸M=24.27, 대졸M=25.76).

다른 한편, 청소년의 직업의식의 유예적 성향(고졸M=20.28, 대졸M=21.44)과 안일한 정도(고졸M=18.71, 대졸M=19.99)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미숙한 상태에 있으며, 직업결정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하고, 게다가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소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직업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아르바이트 경험과 직업의식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정」의 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유예」적 성향과 충돌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 집단은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도 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그다지 의미있는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와 직업의식 결정 정도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숙」, 「혼란」, 「유예」, 「모색」, 「결정」, 「안일」의 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숙」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집단(M=20.21)이 비경험자집단(M=18.2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혼란」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경험자집단(M=23.66)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의 유예적 성향에 관한 영역에서는 자원봉사 비경험자집단(M=19.83)이 경험자집단(M=20.9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마찬가지로 직업결정에 대한 노력 정도를 설명해주는 「안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비경험자집단(M=18.23)이 경험자집단(M=19.3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집단(M=10.37)이 비경험자집단(M=11.28)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결정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그들의 직업의식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직업체험활동 경험도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예」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M=20.35)이 비경험집단(M=20.35)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한 유예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경험집단(M=18.78)은 경험집단(M=19.74)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결정」의 영역에서는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집단(M=10.02)이 비경험집단(M=10.91)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앞서도 언급한 조아미(2001)와 Nelson(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그리고 자치기구활동도 일정 부분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동아리활동 경험에서는 동아리활동 참여집단(M=12.34)이 비참여집단(M=12.83)에 비해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과 자치기구 참여 경험 유무도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조사대상자 중 청소년단체 및 자치기구 참여 경험자가 10%미만이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4. 정책적 제언

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의식간의 관련성에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체험활동의 내용, 특징, 효과 등에 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각 체험활동의 특성들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아르바이트, 자원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청소년자치기구활동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활동경험이 직업의식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에서는 결정요인으로 학교성적과 학교수준과 같은 학교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 자기의사결정요인과 같은 요인들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및 가정적 요인과 아울러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직업의식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성 향상의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관공서와 청소년지도자, 교사들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직업의식형성과도 연계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정치적 참여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체험을 통한 경제적 참여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인간에게 있어 일, 즉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분 짓는 중요한 바로미터의 하나가 경제적 자립의 여부인데,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직업선택 및 결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으며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용-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당연시 하며, 심지어는 결혼비용까지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점은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선택 및 직업결정은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자립은 정신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지도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및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체험이 직업선택과 직업의식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경험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생활 및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으며, 반대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성적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단순 업무 보조, 배달, 서빙 등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체험이 장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경험의 전이(experiential transfer)’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일에 대한 체험’ 그 자체가 가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간접적 경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들의 경험이 가지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에 대한 체험 기회에 대해 제공자인 기업(성인)과 참여자인 청소년의 상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비용의 절감효과를 노려 싼 값의 노동자(청소년)를 고용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사회생활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비욕구의 충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분야, 직업적

흥미를 체험, 확인하는 기회로서 아르바이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 및 직업선택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결정은 학교만의 역할로 한정해 온 경향이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는 대학 진학이지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역사회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역할에 소극적이며, 청소년수련시설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이며 성과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은 학교교육의 보완적 차원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직업의식발달과 같은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 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인데, 청소년시설이 주축이 되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행정당국 및 기업의 네트워크 구성을 구성하며, 각 구성요소들간의 역할 조율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